

# 한국형 슈퍼히어로영화 <전우치>에 나타난 변형된 인물의 욕망과 서사구조 연구 분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formed Desire and Narrative Structure seen through  
Korean Superhero Film <Jeon Woochi>:

Based on Aristotelian Poetics, and Triangular Desire of Rene Girard

현 승 훈  
목원대학교

Hyun, seung-hoon  
Mokwon University

## 요약

주로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는 이미지 위주의 인물서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반해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경우, 인물서사 보다는 사건 위주의 서사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만화원작의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와 소설, 특히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국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슈퍼히어로 영화의 서사구조 특성은 무엇이고 또한 그 한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영화 <전우치>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 I. 서론

소설원작 기반의 영화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소설원작의 영화는 주로 인물보다는 사건에 따라서 내러티브가 진행되게 되며, 이에 반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경우 사건 위주의 서사보다는 인물중심의 서사를 주로 채택하게 된다. 이는 만화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슈퍼히어로영화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슈퍼히어로영화의 이야기 전개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경우 이미지 위주의 할리우드식 인물중심 서사를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에 제작된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전우치>의 변형된 서사구조와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시학>에서의 말하는 플롯의 기본조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비극의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일정한 크기, 즉 일정한 길이 내에서 작가가 개연과 필연적인 사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야기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주인공은 유덕한 자, 즉 평

범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자(Excellent)의 실수(hamartia)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오고가는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겪어야 하며(인간의 내면 혹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급전) 이때 이러한 급전을 통해 관객은 새로운 진리(사실, 값)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의 해결을 통해 관객들이 최종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바로 카타르시스 감정(phathematon)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비극의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1][2]

### 2.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

르네 지라르는 현대소설의 서사는 주인공 욕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다. 즉 주체가 대상을 자의에 의해 욕망하는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 주인공의 욕망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욕망의 삼각형으로 도식화 하였다.

그가 주장한 욕망의 삼각형은 주체와 주체의 욕망을 충동시키는 욕망의 매개자 즉 타자와 욕망의 대상을 놓고 그려지는 3개의 점을 이어놓은 것이다. 이 삼각형을 기본구조로, 욕망은 주체에서 대상으로 직접 진행하지 않고 매개자, 즉 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욕망이 중개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에 있어서 핵심주장이다. 이때 주인공이 내면적으로 간접화된 욕망은 갈등의 관계를 유발

하게 되며, 반대로 외면적으로 간접화된 욕망은 동경의 관계를 유발하게 된다.[3]

### Ⅲ.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 및 인물분석

#### 1. 개연과 필연성에 의한 사건을 적절히 선택

영화 <전우치>에서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주인공 전우치가 향하는 욕망의 대상을 중심으로 필연적인 사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동검(1차적 욕망의 대상)을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서인경과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고, 서인경(2차적 욕망의 대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만파식적(마지막 욕망의 대상)을 얻게 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스승이 요괴 화담에 의해 살해되는 필연의 과정을 겪게 된다.

#### 2. 주인공(유덕한자 Excellent)의 실수(hamartia)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의 쾌감은 연민과 공포에서 오며, 이 때 시인은 이 쾌감을 모방에 의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 사건에는 반드시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의 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행동의 원인은 반드시 성격과 사상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

영화 <전우치>에서 전우치는 유덕(Excellent)하지만 그의 성격에 따른 실수(hamartia)때문에 비극에 이르게 되고, 이를 통해 관객은 연민을 느끼게 된다. 즉 다중적 욕망의 소유자이자 우유부단, 산만한 성격의 전우치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적 결함 때문에 늘 실수를 범하게 되며 이를 통해 불행의 과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 3. 3막 8장 구조에 근거한 시퀀스구조 분석[4]

막	장	설정	내용
1막	#1	주요캐릭터 설정, 톤 설정 때로는 공격적. 주인공의 삶을 바꿔놓는 사건이 나타난다.	만파식적을 손에 넣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다. 만파식적의 습득은 욕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
	#2	적대자(antagonist), 곤경(Predicament)설정, 1막이 끝나기 전에 주요 갈등이 형성된다. 공격점이 나타난다.	천관의 죽음과 액자에 갇히게 되는 사건
2막	#3	주인공이 첫 번째 방해물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로 넘어와 전우치와 요괴의 첫 번째 만남
	#4	더 힘든 방해물이 등장하고 점점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심각해진다. 주인공이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된다.	첫 정점.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다양한 유혹과 청동검의 발견 그리고 화담의 재등장.
	#5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브 플롯의 등장	초랭이의 배반과 인경의 납치

	#6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는 점점 정점으로 고조된다.	도심 속에서 우치와 화담의 대결.
3막	#7	절정을 통해 영화의 주제를 확연히 드러냄. 해결, 종중 반전과 함께 사건이 해결된다.	영화 세트장에서의 대결. 화담 패배
4막	#8	모든 긴장이 풀리고 모든게 명확해진다. 하위이야기가 정리된다.	전우치, 초랭이, 인경의 만남과 행복한 결말

### Ⅳ. 결론 : 할리우드 슈퍼히어로영화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 <전우치>의 기본 서사구조는 사건 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만화원작의 할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인물중심 서사를 적극적으로 융합하려는 시도,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극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인물과 서사가 충돌하여 관객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주는 단점을 보여 준다. 특히 이야기의 영성한 조합(고전소설 던우치전과 서경덕 화담의 이야기 그리고 만파식적 설화와 사문갑설화, 소설 돈키호테의 조합)과 명확하지 못한 인물의 캐릭터는 고전적 서사구조의 흐름에서 벗어나 욕망의 매개자를 부재하게 만들었고, 이에 극 속의 인물들이 이야기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따로 표류하게 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영화 <전우치>가 만화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식 영웅캐릭터를 극복하고, 한국적 영웅캐릭터로 새롭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여러 시도들은 아마도 그 동안 불모지였던 국내 슈퍼히어로 장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 [1] 아리스토텔레스 저,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문예출판사, pp.32-187, 서울, 2002.
- [2] 마이클 티어노 저,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pp.21-243, 서울, 2008.
- [3] 르네 지라르 저, 김윤식 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서울, 1991.
- [4] 폴 조셉 줄리노 저, 김현정 역, 시나리오 시퀀스로 풀러라, 황매, pp.15-156서울, 2009.